



“교육가족이 열어가야 푸른 학교 바른 교육”

가정통신문

용소중: 제2022-90호
발송일: 2022.11.11.
발송처: 전주용소중학교
문 의: 270-0311

제 목

공교육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를 위한 안내

학부모님 안녕하십니까?

아침, 저녁으로 겨울이 다가오는 차가운 기운이 느껴지는 시기입니다. 환절기에 건강에 유의하셔서 학부모님 댁내에 평안하시기를 기원합니다. 학부모님들의 최고의 관심사는 자녀의 학교생활 및 학업에 대한 것이리라 생각합니다. 이에 공교육정상화법 실시와 선행교육 예방을 위한 안내를 드리니 각별한 주의와 관심 부탁드립니다.

◆ 공교육정상화법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의 약칭

학부모의 경제적 부담을 덜고 학교 내 공정한 경쟁과 교사들의 정상적인 수업을 촉진하여 학생의 창의력 계발 및 인성 함양을 포함한 전인적 교육을 위해 제정된 법

1. 선행학습이란?

학교 교육과정에 앞서서 하는 학습

(학생이 사교육 등을 통해 다음 학기/학년/학교급에서 배워야 할 학교 수업 내용을 미리 공부하는 것)

2. 학부모의 역할

공교육정상화법이 취지에 맞게 운영되려면 학부모님들의 협조가 필수적입니다.

- 학부모의 책무에 관한 기본 사항

학부모는 자녀가 학교의 교육과정에 따른 학교 수업 및 각종 활동에 성실히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학교의 정책에 협조하여야 합니다. 공개수업, 학부모회의, 입시설명회 등 학부모 대상 행사나 활동에 참여하여 학교의 분위기와 교육과정 운영 실태를 파악하는 것이 좋습니다.

3. 선행학습의 폐해

○ 다른 학습자의 학습권과 교사의 수업권 침해

학생이 수업 내용을 미리 알고 있을 경우 학생 자신은 학교 수업의 적극성이 결여되고 교사는 학생들이 이미 알고 있다고 판단하여 기본개념을 충분히 설명하지 않고 넘어가는 악순환으로 인한 다른 학생의 학습권과 교사의 수업권이 침해될 수 있다.

○ 사고력과 자기 주도적 학습능력의 저하

학교 교육과정은 학생의 인지, 정서 및 사회발달 단계와 사고의 수준을 고려하여 구성되어 있으나 발달 단계와 사고의 수준을 넘어서는 내용의 학습으로 충분히 사고하고 이해하려는 자기 주도적 학습능력이 떨어져 피상적이고 기계적인 문제 풀이 학습에 치우치게 되어 사고력, 흥미도 및 집중력 저하 등 다양한 문제를 파생시키게 된다.

○ 남보다 앞서 나가기 위한 지나친 속도 경쟁

선행학습을 하는 내용이 곧 그 학생의 실력이라는 잘못된 편견(예: 초등학교 6학년 학생이 중학교 1학년 수학을 하고 있으면 중학교 2학년 수학을 공부하는 학생이 더 잘한다는 의식)으로 인하여 선행학습은 무한 속도 경쟁에 내몰리고 있는 실정이나 사고력 저하로 대학 입시에서는 좋은 성적을 내지 못하고 있음.

○ 학부모의 과도한 사교육비 부담

통계청이 발표한 2017년 유·초·중·고등학교 사교육비 총액은 약 18조 6천억 원으로 이는 사회 양극화를 심화시키고 저출산과 노후 준비를 못 하는 등 에듀푸어 양산은 중산층 붕괴를 가속화로 이어져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음.

◆ 사교육 기관에도 적용이 될까?

학원 등의 사교육 기관은 교육 서비스를 상품으로 판매하는 경제주체로 활동하고 있고 정부의 지원을 받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학교처럼 강력한 통제를 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공교육정상화법을 학원 등 사교육 기관에도 적용이 됩니다.

2022년 11월 11일

전주용소중학교장

